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 순차통역 충실성과 전달력에 미치는 효과: 관련성 이론을 기반으로*

박예진(한국의국어대학교)

1. 서론

통역은 단순한 언어 전환이 아니라 청자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화자의 발화를 해석하고 핵심 정보¹⁾를 파악하여 재구성하는 복합적인 인지 활동이다(Gile, 2009; Pöchhacker, 2016). 특히 순차통역에서는 화자의 발화를 일시적으로 기억한 후 재구성해 전달해야 하므로, 핵심 정보 선별과 메시지 재구성 능력이 핵심 역량으로 작용한다(Wang, 2023). 본고에서는 이렇게 원 발화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목표 언어의 특성과 청중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정보를 재조직하는 능력을 “재구성 능력”이라 칭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재구성 과정은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수반한다. 첫째, 화자의 전체 메시지에서 핵심 정보를 식별하고, 둘째, 통역 상황과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한다.

재구성 능력의 중요성은 지난 20여 년간 통역학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

* 본 연구는 선행 학위논문(박예진, 2025)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2차 분석 연구임을 밝힌다.

1) 본 연구에서 ‘정보’는 통역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의의 개념으로,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된 의미(sense), 메시지(message), 아이디어(idea)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Ouyang, 2018).

와도 맥을 같이한다. 통역학 연구에서는 언어적 등가성을 넘어 의미 중심의 재구성과 청자의 이해도를 고려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Napier, 2004; Pöschhacker, 2001). 이러한 변화 속에서 통역사의 재구성 능력, 즉 핵심 정보를 선별하고 청자에게 맞춰 재조직하는 능력이 통역 품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부각되었다. 청자들은 통역 품질 평가 시 정확성뿐 아니라 명확성과 이해의 용이성도 중시하며(Guo et al., 2024), 이는 통역사의 전략적 재구성 능력이 청자의 만족도 및 품질 인식과 직결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보 처리, 선별, 재구성 능력은 통역사의 핵심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으며(Al-Salman, 2007), 이는 통역 품질 평가의 주요 기준인 충실성(fidelity)과 전달력(delivery)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충실성은 원문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존했는가를 의미하고, 이는 통역사가 무엇을 핵심으로 판단하여 재현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Gile, 2009). 전달력은 단순한 유창성이나 발화 속도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핵심 정보를 선별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인지 부하를 줄이고 의미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포함한다(Iglesias Fernández, 2013). 이러한 충실성과 전달력의 균형은 통역사가 정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메시지를 재구성하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달성된다. 이는 정보의 우선순위 설정과 의미 재구성 역량이 통역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하며, 따라서 이러한 역량의 개발과 평가가 통역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역(sight interpreting)은 이러한 전략적 역량을 훈련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Li, 2015). 시역은 문자 텍스트를 보면서 즉시 구어로 통역하는 활동으로,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유용한 학습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박예진, 2025).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역 연구는 주로 시역의 종합적인 훈련 효과나 통역 수행 전반과의 연계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다루어 왔다(Yamada, 2020).

또한 시역 훈련과 통역 역량 간의 인과적 관계를 정량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여전히 제한적이다(Fang et al., 2023). 특히 키워드 찾기, 의미단락 나누기, 정보 우선순위 정하기 등 시역에서 요구되는 개별 하위 역량을 세밀하게 탐구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박예진, 2025). 무엇보다도 시역 훈련을 통해 정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통역 수행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는 시역 훈련이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해당 역량이 순차통역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선행 학위논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되 시역 훈련의 하위 역량 중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역량이 순차통역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는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이론적 틀로 채택한다. 스퍼버와 윌슨(Sperber & Wilson, 1995)의 이 이론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처리 노력과 인지 효과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화자는 청자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구성하고, 청자는 맥락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의미를 도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관련성 이론의 이러한 원리는 통역 과정을 설명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통역사는 시간 제약과 인지 한계 속에서 통역을 수행하므로,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처리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게 된다. 이때 통역사는 기계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관련성 이론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정보 우선순위 설정과 재구성 과정의 인지적 본질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시역 훈련을 통해 강화되는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 순차통역 품질, 특히 충실성과 전달력²⁾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했다.

연구 질문 1: 시역 훈련을 받은 학습자들은 통제군에 비해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에서 향상을 보이는가?

2) 통역 품질 평가의 주요 요소로는 충실성, 목표 언어 사용능력, 전달력이 있으나 (Lee, 2008; Liu, 2013; Pöschhacker, 2016), 본 연구에서는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충실성과 전달력만을 분석하였다. 목표 언어 사용능력은 주로 언어적 숙달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본 연구의 핵심인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과는 구별되는 영역이다.

연구 질문 2: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은 순차통역에서의 충실성 및 전달력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함으로써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 순차통역 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통역 교육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지역 훈련이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첫째, 통역사의 정보 처리 전략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관련성 이론을 살펴보고, 이것이 통역의 충실성과 전달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한다. 둘째, 순차통역 수행에서 요구되는 정보 우선순위 설정 전략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역량 개발을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 지역 훈련의 특성과 순차통역 품질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2.1 관련성 이론

관련성 이론은 스퍼버와 윌슨(1995)이 제안한 의사소통 이론으로, 인간은 제한된 인지 자원하에서 최소한의 인지 노력으로 최대의 인지 효과를 얻고자 한다는 원리에 기반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화자의 발화를 처리하는 청자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선별적으로 처리하며 ‘최적의 관련성(optimal relevance)’을 추구하게 된다. 여기서 최적의 관련성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처리 노력 대비 인지 효과가 가장 큰 해석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리는 통역 수행의 본질과 직결된다. 통역사는 ‘제1의 청자(first listener)³⁾’로서 원문을 먼저 수용한 후, 이를 목표 청중의 인지적 맥락과 의

3) ‘제1의 청자’라는 표현은 통역사가 발화자이기 전에, 화자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청취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수용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해석적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은 질(Gile, 2009)의 노력 모델(Effort Model)에서 통역 과정이 청취

사소통 요구에 맞도록 메시지를 재구성한다(Kalina & Köln, 2000). 이 과정에서 통역사는 원문의 모든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성이 높은 핵심 정보를 선별하고 의미 구조를 효과적으로 재조직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Setton & Dawrant, 2016).

순차통역에서 관련성 이론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제한된 기억 용량, 분절된 발화 수용, 즉각적 의미 재구성이라는 세 가지 제약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통역사는 핵심 정보를 우선적으로 포착하고, 반복적이거나 부차적인 요소는 요약하거나 생략하는 등 정보 구조를 전략적으로 조정한다(Tayebi, 2025). 질(2009, pp. 182-184)은 통역사가 모든 발화 내용을 처리하려 할 때 오히려 오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과 용량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통역의 충실성과 전달력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구트(Gutt, 2000)에 따르면 충실성은 단순한 의미적 등가성이 아니라 화자의 의도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도로, 전달력은 청중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재구성하는 능력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통역사의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은 ‘최적의 관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인지 행위로 해석되며, 관련성 이론은 정보의 선택, 압축, 재구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을 기반으로 시역 훈련이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연구 질문 1), 향상된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 통역 품질 평가 요소인 충실성과 전달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한다(연구 질문 2).

2.2 순차통역에서의 정보 우선순위 설정

통역에서 화자의 원발화는 개별 문장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중심 개념과 부차적인 개념 간의 관계가 위계적으로 조직된 담화 텍스트이다(Gile, 2009). 특히 순차통역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계층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핵심적이다. 통역사는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핵심 정보

와 세부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분하고,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내용을 조직화해야 한다(Setton & Dawrant, 2016).

이러한 정보 처리는 고도의 인지적 활동을 요구한다. 통역사는 정보를 순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의미를 재구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미 구조와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게 된다(Zou & Guo, 2024). 결국 성공적인 통역은 발화 전체를 기계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담화 구조 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고 그 핵심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초보 통역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전반적인 맥락이나 중심 의미보다 문장 구조나 단어 수준의 정보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박예진과 남원준, 2023; Choi, 2022; Liu & Chiu, 2009). 반면 숙련된 통역사들은 정보 간 위계구조를 파악하고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재구성하여 더 정확한 통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ou & Guo, 202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란 (1) 담화 내에서 중심 메시지와 부차적 정보를 구분하는 ‘정보 식별 능력’, (2) 청중의 인지 환경과 의사소통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성 높은 정보를 선택하는 ‘정보 선별 능력’, (3) 선별된 정보를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조직하는 ‘정보 재구성 능력’의 통합적 역량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하위 능력은 순차적이면서도 상호작용적으로 작동한다.

2.3 시역 훈련: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 개발의 실천적 도구

2.3.1 시역의 개념과 교육적 특성

시역은 문자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구두 변환하는 통역 활동의 한 형태이다(Čeňková, 2010). 이는 단순한 언어 전환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파악하여 목표 언어로 재표현하는 과정으로(Weber, 1984), 읽기와 말하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적 언어 처리 활동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시역은 통역 교육에서 중요한 훈련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허지운, 2020; 홍설영,

2012; Agrifoglio, 2004; Krapivkina, 2018). 특히 정보를 선별하고 핵심 의미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abayev, 2023; Li, 2015).

시역과 순차통역은 의미 중심의 정보 처리라는 측면에서 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두 활동 모두 화자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이를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조직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시역은 텍스트가 눈 앞에 있다는 점에서 기억에 대한 부담이 적고 청취 이해력, 노트테이킹 기술의 숙련도와 같은 추가적인 인지적 부담 없이 학습자들이 정보 처리와 재구성이라는 통역의 본질적 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Lijewska et al., 2022).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시역을 단순한 활동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최정화(2006)가 설명한 바와 같이 시역에서 중요한 것은 단어를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를 기반으로 시역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선별하는 능력과 직결된다. 시역 과정에서는 인지 처리와 발화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Weber, 1990),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무엇이 핵심인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이를 구두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실시간 정보 선별과 재구성 과정은 관련성 이론에서 말하는 ‘최소 노력-최대 효과’ 원칙을 실천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이상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한다.

2.3.2 시역의 인지적 요구와 핵심 역량

시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부하는 질(2009)의 노력 모델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통역사는 제한된 처리 용량(processing capacity) 내에서 여러 인지적 노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시역의 경우, 읽기 노력, 기억 및 처리 노력, 산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시역은 텍스트가 계속 눈앞에 있어 시각적 간섭(visual interference)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순차통역이나 동시통역과는 다른 형태의 인지적 부담을 초래한다(Agrifoglio, 2004; Shreve et al., 2010).

이러한 다중 과제 환경에서 모든 정보를 동일한 비중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처리 용량을 초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미 왜곡, 오류 증가, 유창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역 시에는 제한된 인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정보의 중요도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관련성이 높은 정보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는 관련성 이론에서 말하는 ‘인지적 효율성 추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행동 패턴이다.

이와 같은 인지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하위 역량을 통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리(2012)는 시역 훈련에서 필요한 주요 역량으로 텍스트 구조 파악, 의미 단위 구분, 핵심 정보 선별 등을 제시했다. 첫째, 텍스트 구조 파악 능력은 전체 메시지의 논리적 흐름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주요 논점과 보조 정보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의미 단위 구분 능력은 문법적 단위가 아닌 의미적 완결성을 기준으로 정보를 청킹(chunking)하는 과정으로, 이는 정확한 의미 전달과 자연스러운 발화의 기초가 된다(Chen, 2015).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 정보 선별 능력이다. 학습자들은 시역 수행 시 실시간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식별하고 이를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Lee, 2012), 이는 단순히 중요해 보이는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청중의 필요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별된 정보를 목표 언어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핵심 역량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역은 순차통역 교육의 효과적인 훈련 도구가 된다.

2.3.3 시역 훈련과 순차통역 품질의 연관성

시역 훈련이 순차통역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여준다. 충실성 측면에서는 시역을 사전 활동으로 수행한 학습자들의 통역 오류가 현저히 감소하고 의미 전달이 향상되었으며(Sitnic, 2020), 전달력 측면에서는 발화 속도와 유창성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다(박미정, 2014).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집중적인 시역 훈련에도 불구하고 순차통역 성적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지 않았다(Yamada, 2020). 이러한 상충된 결과는 시역 훈련의 효과가 단순한 기술 전이가 아니라, 정보 처리 전략과 같은 특정 하위 역량의 개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시역과 순차통역 성적 간의 상관관계 연구들은 두 통역 방식이 공

통의 기저 역량을 공유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두 통역 방식의 시험 성적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보고되었으며 (Jasim & Alinouri, 2024; Shang & Xie, 2023), 이는 원문 이해력, 언어 전환 능력, 전달력 등의 핵심 역량이 두 방식 모두에서 중요하게 작용함을 나타낸다. 특히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고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이 두 활동의 공통분모로 작용한다는 점은 시역 훈련이 순차통역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박예진(202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역에서 요구되는 하위 역량 (키워드 찾기, 의미단락 나누기, 정보 우선순위 정하기 등)과 순차통역의 평가 요소(충실성, 전달력 등)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정보 우선순위 설정과 같은 인지적 전략이 통역의 핵심 품질 지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역 훈련이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 역량이 통역 품질에 기여하는 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와 참여자 구성

본 연구는 학부 통역 교육 환경에서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과 통역 품질(충실성, 전달력)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준실험 연구(quasi-experimental research) 설계를 적용했다. 연구 참여자는 국내 한 대학의 학부 통번역 전공생 37명으로, 모두 한-영 순차통역 과목을 수강했다. 두 개의 자율 수강 분반 중 한 분반은 실험군(18명), 다른 분반은 통제군(19명)으로 임의 배정했다. 실험군은 수업 내에서 정보 우선순위 설정을 포함한 시역 훈련을 병행했으며, 통제군은 기존의 순차통역 훈련만을 받았다. 시수, 과제, 평가 기준, 교수자 등 전반적인 수업 조건은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유일한 차이는 시역 훈련의 제공 여부였다.

수업 활동과 평가가 일상적인 교육 상황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구로

인한 수행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McCambridge et al., 2014), 수업 진행 중에는 연구 목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학기 종료 후 연구의 목적과 자료 활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뒤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 사용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학기 말에 해당 과목의 정규 평가 외에도, 추가적인 전문가 평가와 피드백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적 혜택을 경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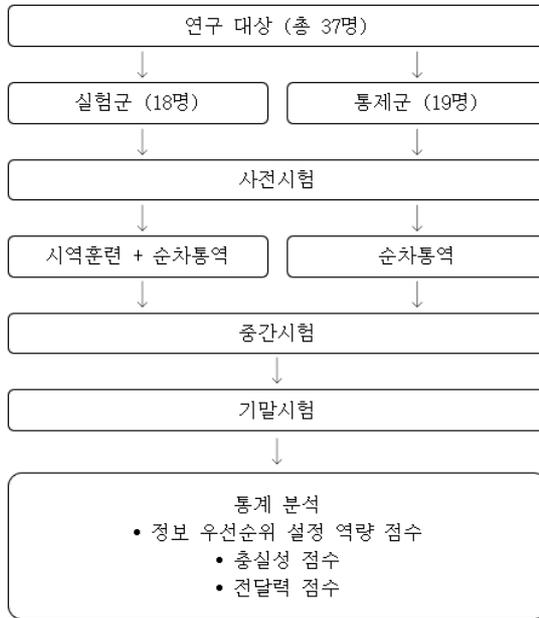
연구 시작 전, 수강 동기, 통역 경험, 통번역 관련 배경 등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통해 두 집단의 전반적 특성이 유사함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두 집단은 성비, 해외 체류 경험, 관련 과목 이수 여부 등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통계적 동질성 확보를 위해 학기 초 실시한 통역 사전시험 점수로 Levene's Test와 Brown-Forsythe Test를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기초 실력을 검증했다. 두 검정 모두에서 $p > .05$ 로 나타나, 두 집단의 사전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는 두 집단이 초기 조건에서 동질적이며, 실험 처치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실험 설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눈가림(blinding)’ 전략을 적용했다. 학생들에게는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을 수업 중 공개하지 않아 실험 참여 인식이 통역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고(1차 눈가림), 평가자들에게는 평가 대상자의 소속 집단 및 신원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평가 편향을 최소화했다(2차 눈가림). 이러한 설계는 통역 교육 환경에서 반응 편향과 관측 편향을 줄이고 비교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설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군과 통제군의 유일한 차이는 지역 훈련의 포함 여부이며, 이를 통해 지역 훈련이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과 통역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그림 1
연구 설계 개요



3.2 연구 절차

연구는 2024학년도 1학기 15주 동안 진행된 학부 순차통역 수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업은 매주 1회 120분씩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실험군과 통제군은 모두 동일한 텍스트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통역 실습 방식, 과제 제출 및 설문조사 응답 등 전반적인 수업 운영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실험 처치로서의 유일한 차별점은 실험군 수업에 시역 활동을 추가했다는 것으로, 실험군 학생들은 통역 실습 전에 매주 15~20분간 시역을 수행했다.

시역 훈련은 학습자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초기 단계(4-6주차)에서는 핵심 어절 찾기를 통한 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고, 중간 단계(7-8주차, 10-11주차)에서는 의미 단락 나누기와 문장 재구성을 통해 정보 우선순위 설정 능력을 강화했다. 고급 단계

(12-14주차)에서는 전체 텍스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메시지를 재구성하는 통합적 훈련을 실시했다⁴⁾.

지역 훈련에는 시의성 있는 뉴스 기사, 사설, 연설문 등을 편집한 자료를 사용했으며, 순차통역 실습 자료와 난이도의 균형을 맞추었다. 일부 주차에는 지역과 순차통역에 독립적인 자료를 사용했고,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두 활동을 진행했다.

난이도 통제와 관련하여 시험용 텍스트는 주제, 문장 수, 문장 길이, 발화 속도를 정량적으로 통제했다. 반면 수업용 텍스트는 실제 뉴스나 연설문 등 긴 텍스트를 편집하였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동일하게 통제하기보다는 학습자 수준에 맞춰 주제 적합성과 점진적 난이도 상승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학습자들이 단순한 정보 식별에서 시작하여 복잡한 텍스트의 정보 우선순위 설정과 재구성 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매주 지역 훈련 세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주차별 과제에 따라 핵심 정보를 표시하는 분석 작업을 5분간 수행했다. 이어서 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 실습을 10분간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동료와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5분 가졌다. 이러한 구조화된 접근을 통해 학습자들이 체계적으로 정보 처리 전략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를 위해 사전시험(3주차), 중간시험(9주차), 기말시험(15주차)에서 총 110개의 통역 파일을 수집하고, 학기 종료 후 통역 파일을 한국인 4명과 원어민 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의뢰했다.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집된 통역 파일을 익명 처리하고 무작위로 배열했다. 가령 사전시험 파일에는 1-36번, 중간시험 파일에는 1001-1037번, 기말시험 파일에는 101-137번의 번호를 할당했다. 이 과정에서 실험군과 통제군의

4) 구체적인 주차별 활동 내용은 박예진(2025, pp. 121-139)을 참조.

5) 총 111개의 통역 파일이 수집되어야 하나, 1명의 학생이 사전시험에 불참하여 사전시험 파일은 36개만 수집되었다. 해당 참여자 데이터의 포함 여부에 따른 회귀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형 혼합 효과 모델(Linear Mixed-Effects Model)은 결측값에 강건한 분석 기법이므로(신경아, 2019), 해당 참여자를 제외하지 않고 분석에 포함했다.

파일을 혼합 배치하여 평가자가 시험 시점, 피평가자의 소속, 신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익명 평가 절차를 통해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입견이나 후향효과와 같은 인지적 편향을 방지하고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3.3 평가자 구성과 항목

평가위원단은 한국인 4명과 영어 원어민 2명, 총 6명으로 구성했다. 모든 평가자는 통번역 교육 또는 관련 업무 경력이 평균 8년 이상인 전문가들이다. 한국인 평가자는 모두 통번역학 전공자로서 교육 및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어 원어민 평가자는 영어권 국가 출신으로 대학에서 통번역학과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영어 원어민 평가자는 통역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청중의 시각에서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통역 평가에서 수용자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논지를 반영한 것이다(박헌일, 2019). 구체적으로 한국인 평가자는 순차통역 평가 항목(충실성, 전달력)과 시역 하위 역량(정보 우선순위 설정)을 평가하고, 영어 원어민 평가자는 순차통역 평가 항목(전달력)을 평가했다⁶⁾.

순차통역 능력과 시역 하위 역량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가 항목을 두 범주로 구분했다. 첫째, 순차통역 평가 항목인 충실성과 전달력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요소를 포함하므로 10점 척도로 평가했다(Clifford, 2001). 충실성은 내용의 정확성을, 전달력은 발화의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둘째, 시역 하위 역량인 정보 우선순위 설정은 비교적 단일하고 구체적인 행동 양상을 평가하기 위해 3점 척도를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핵심 정보의 정확한 파악과 체계적 재구성(상), 주요 정보는 파악하나 우선순위 설정이 일부 부적절(중), 정보의 중요도 구분 없는 나열(하)로 구분했다. 평가자들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목별로 상세한 평가 기준과

6)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분석 범위를 고려하여 기존 연구(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전체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선별하여 활용했다. 기존 평가 항목은 순차통역의 충실성, 목표언어 사용능력, 전달력과 시역 하위 역량의 키워드 찾기, 의미단락 나누기, 정보 우선순위 정하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충실성, 전달력, 정보 우선순위 설정이라는 세 항목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루브릭을 제공했으며, 이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인 평가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평가 기준과 루브릭에 대한 1시간의 워크숍을 통해 각 항목의 정의와 평가 기준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본 연구와 독립적인 통역 시험 파일 3개를 활용한 모의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자 간 신뢰도를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로 검증한 결과, 순차통역과 시역 하위 역량 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일관성($ICC > 0.8$)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평가자들이 평가 기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확립했음을 검증한 후 본 평가를 시작했다.

영어 원어민 평가자의 경우, 전달력만을 평가하였고 통역 전문가보다는 일반 청중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평가표와 항목별 루브릭을 포함한 상세한 영문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 목적과 기준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

3.4 분석 도구와 방법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RStudio를 기반으로 수행했으며, 연구 질문에 따른 주요 분석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실험군과 통제군간의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의 변화 비교
- 2) 정보 우선순위 설정 능력과 순차통역 품질(충실성, 전달력) 간 상관관계 분석

주요 분석 기법으로는 선형 혼합효과 모형(Linear Mixed-Effects Model, LMM)을 채택했다. LMM은 반복 측정 자료 분석에 적합한 통계 기법으로, 개별 학습자와 평가자의 변이를 임의효과(random effect)로 통제하며 처치 효과 등의 고정효과(fixed effect)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lozis & Craft, 2023; Lohse et al., 2023). LMM 분석은 R의 ‘lme4’ 패키지를 사용해 수행했으며, 고정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lmerTest’ 패키지를 함께 활용했다.

평가자 간 신뢰도는 급내 상관계수(ICC)를 통해 검증했다. ‘irr’ 패키지를 활용하여 ICC 값을 산출했으며, 높은 ICC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Hallgren, 2012).

4. 연구 결과

4.1 평가 데이터

본 연구는 총 37명의 학습자의 순차통역 파일을 6명의 평가자(한국인 4명, 원어민 2명)가 평가한 결과를 분석했다. 사전·중간·기말시험에서 총 110개의 통역 파일이 수집되었으며, 각 평가 항목은 충실성(10점 척도), 전달력(10점 척도), 정보 우선순위 설정(3점 척도)으로 구성되었다.

평가 결과, 세 시점 모두에서 충실성과 전달력은 평균적으로 약 6점대 수준, 정보 우선순위 설정은 약 2점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자 간 신뢰도 분석을 위해 급내 상관계수(ICC)를 산출한 결과, 전달력(ICC = 0.87)이 가장 높은 일관성을 보였고, 충실성(ICC = 0.73)은 양호한 수준, 정보 우선순위 설정(ICC = 0.56)은 보통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쿠와 리(Koo & Li, 2016)의 기준에 따르면 ICC가 0.75 이상이면 높은 신뢰도, 0.5-0.75인 경우 보통 신뢰도를 의미한다.

다만 정보 우선순위 설정의 상대적으로 낮은 ICC 값은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척도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항목의 표준편차는 0.6-0.8로 충실성과 전달력(1.5-2.0)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인 변동계수는 정보 우선순위 설정(0.35)이 충실성(0.26)과 전달력(0.29)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3점 척도의 제한된 범위로 인해 평가자 간 작은 차이도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 값이 0.56로 나타난 것은 여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며,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 활용하기에 충분한 일관성을 보여준다.

4.2 분석 결과

4.2.1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의 변화

혼합효과 모형 분석 결과, 중간시험에서 실험군의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의 점수가 통제군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beta = .388, p = .005$),

기말시험에서도 통제군보다 높은 경향($\beta = .238, p = .087$)을 보였다.

표 1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에 대한 혼합효과 모형 고정효과 분석 결과

변수	추정치	p-value
절편	2.000	< .000
집단	-0.119	.383
중간시험	-0.158	.100
기말시험	.145	.132
실험군의 중간시험 변화	.388	.005
실험군의 기말시험 변화	.238	.087

이는 지역 훈련이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기말시험에서 실험군의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 점수는 통제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p = .087$ 로 5% 유의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10% 유의수준에서만 한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지역 훈련 효과가 일정 시점 이후 완만해지는 학습 곡선의 특성(Newell & Rosenbloom, 1981), 기말시험의 체감 난이도 차이⁷⁾, 학기 말 피로 누적 등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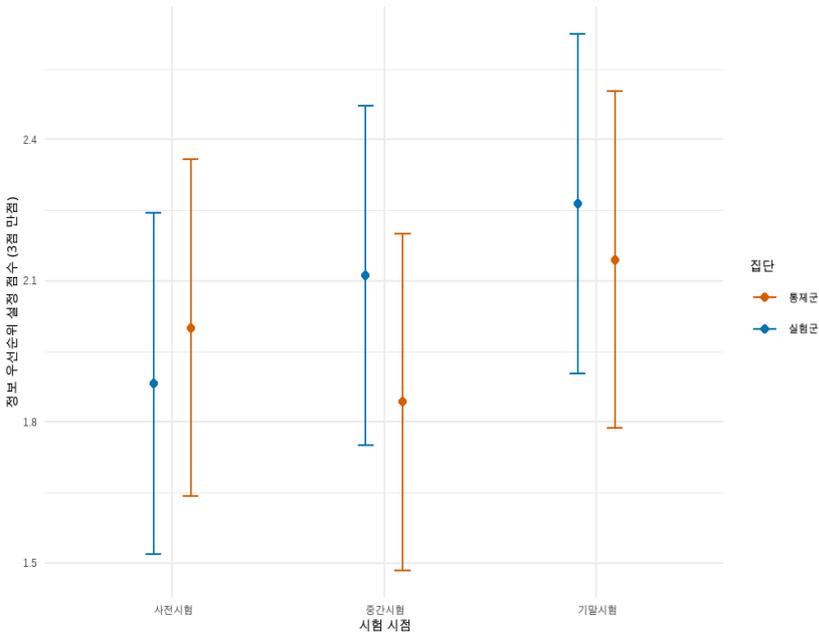
반면 집단이나 시험 시점을 각각 따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실험군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실험군은 중간시험에서 통제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beta = .388, p = .005$), 기말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었다($\beta = .238, p = .087$). 반면 통제군은 시간 경과에 따른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지역 훈련을 받은 학생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시간 경과만의 효과가 아닌 지역 훈련의 효과임을 보여

7) 원문 난이도는 시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모든 시험에서 문장 수, 문장 길이 지수, 발화 속도 등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유사한 수준으로 통제하였다(Gile, 2009; Liu & Chiu, 2009). 모든 원문은 수업에서 다룬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자가 명료한 발음으로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을 활용하여 시험을 실시했다.

준다.

다음 <그림 2>는 세로축을 3점 만점의 정보 우선순위 설정 점수, 가로축을 시험 시점(사전·중간·기말)으로 하여 각 집단의 예측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보이듯 사전시험에서는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군의 점수가 다소 낮았다. 이후 중간시험에서 실험군이 통제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기말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었다.

그림 2
시험 시점별 정보 우선순위 설정 점수 예측값과 95% 신뢰구간



4.2.2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과 충실성 및 전달력 간 상관관계

혼합효과 모형 분석 결과,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은 순차통역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beta = 2.068, p < .001$). 구체적으로 정보 우선순위 설정 점수가 1점 상승할 때 순차통역 점수가 평균

2.068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조직화하는 역량이 원문 의미의 정확한 전달(충실성)과 유창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전달력)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 순차통역의 충실성과 전달력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충실성에 대한 영향력($\beta = 1.271, p < .001$)이 전달력($\beta = .803, p < .001$)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정보 우선순위 설정 점수가 1점 상승할 때 충실성은 평균 1.271점, 전달력은 평균 0.803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보의 핵심을 판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조직하는 역량이 원문 의미의 정확한 전달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달력과의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 매끄러운 발화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표 2>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 충실성과 전달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여기서 ‘추정치(β)’는 혼합효과 모형의 고정효과 회귀계수를 의미하며 독립 변수가 1점 증가할 때 종속 변수 점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표 2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 충실성과 전달력에 미치는 고정효과 추정치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추정치	p-value
충실성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	1.271	< .001
전달력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	.803	< .001

이상의 분석에서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 순차통역의 두 핵심 품질 요소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충실성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5. 논의

5.1 관련성 이론 관점에서의 해석

본 연구 결과는 관련성 이론의 핵심 원리와 일치하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스퍼버와 윌슨(1995)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작용은 최소한의 인지 노력으로 최대한의 인지 효과를 얻도록 이루어지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는 화자의 발화가 ‘최적의 관련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하며 정보를 처리한다.

실험군이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것은 이러한 이론적 예측과 부합한다. 학습자들은 시역 훈련을 통해 원문에서 관련성 높은 핵심 정보를 선별하고 부차적 정보를 걸러내는 전략을 체득했으며, 이는 중간시험에서의 유의미한 향상($\beta = .388, p = .005$)과 기말시험에서의 향상 경향($\beta = .238, p = .087$)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최소 노력-최대 효과’ 원칙을 실제 통역 수행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통역사의 이중적 역할이다. 통역사는 ‘제1의 청자’로서 원발화를 먼저 수용하고 해석한 후, ‘제2의 화자’로서 이를 청중에게 전달한다.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은 이 두 단계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통역사 자신의 이해 단계에서 인지 처리 노력을 감소시켜 보다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둘째, 청중에게 전달하는 단계에서 핵심 정보 중심의 명확한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 충실성($\beta = 1.271, p < .001$)과 전달력($\beta = .803, p < .001$)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이러한 이중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특히 충실성과의 더 강한 상관관계는 정보 선별과 조직화가 원문 의미의 정확한 전달에 직접 기여함을 시사한다. 이는 통역이 단순한 언어 치환이 아닌 의미 중심의 선택적 재구성 행위를 보여 주며, 관련성 이론이 통역의 인지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유효한 틀임을 입증한다.

5.2 선행연구와의 비교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 처리 전략과 통역 수행의 관계를 탐구한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조우와 귀(Zou & Guo, 2024)의 연구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이들은 고급 통역 학습자가 정보 밀도가 높은 원문을 처리할 때 초급 학습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행 능력을 보였으며, 이는 발화 청취 단계에서 정보를 더 일찍, 더 깊이 있게 재구성하는 전략 덕분임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시역 훈련을 받은 실험군이 향상을 보인 것은 이러한 고급 학습자의 전략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또한 정보처리 수준 이론(Levels of Processing Theory)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크레이크와 로크하트(Craik & Lockhart, 1972)에 따르면 정보를 의미 중심으로 깊이 처리할수록 기억도 더 잘 되고 회상도 쉬워진다. 바호 등(Bajo et al., 2000)과 리우 등(Liu et al., 2004)의 연구 역시 통역사가 정보를 의미 단위로 처리할 때 기억 효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이 보인 점수 향상은 학습자들이 단순한 문장 단위 처리를 넘어 의미 중심의 정보 처리 전략을 체득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통역의 전략적 생략과 선택에 관한 기존 논의도 뒷받침한다. 비아조(Viaggio, 2002)는 ‘선택적 듣기(selective listen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맥락상 관련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굳이 통역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펴(Pym, 2008)은 청중의 이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보의 생략을 ‘저위험(low-risk)’ 전략으로 분류했다. 본 연구에서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 통역의 충실성과 전달력 모두를 향상시킨 것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전략적 정보 처리 능력이 자연스럽게 습득되기 어려우며,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제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를 명확히 뒷받침한다. 최(Choi, 2022)에서도 학습자들이 하위 주제는 포착하지만 중심 주제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시역 훈련은 바로 이러한 정보의 계층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함

양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3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통역 교육, 특히 학부 수준의 순차통역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지역 훈련이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실천적 도구임을 입증했다. 학부생과 같은 초급 학습자들에게 지역은 기억력이나 노트테이킹의 부담 없이 정보 처리와 재구성이라는 통역의 본질적 기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훈련의 체계성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단계적으로 설계된 지역 훈련을 통해 핵심 어절 찾기, 의미 단락 나누기, 전체 텍스트 구조 파악으로 점진적으로 역량을 확장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이 중간시험에서의 유의미한 향상으로 이어진 것은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학습 가능한 기술임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통역 품질의 두 핵심 요소인 충실성과 전달력이 모두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는 통역 교육에서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보 처리 전략의 개발이 동등하게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충실성과의 강한 상관관계는 의미 중심의 정보 선별과 조직화가 정확한 통역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통역의 인지적 부담 분배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통역은 이해와 기억, 산출이 실시간으로 병행되는 고부하 인지 과제로, 청취와 이해 단계에서 과도한 인지 부하가 발생하면 생산 단계의 유창성이 저해될 수 있다(Gile, 2009). 진(Jin, 2010)은 ‘부채 은유(debt metaphor)’를 통해 이를 설명하는데, 통역사가 이해 단계에서 정보를 조기에 구조화하여 ‘인지적 부채’를 미리 상환하면 산출 단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 훈련을 받은 학습자들이 전달력에서도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것은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조직화하는 능력을 기른 학습자들은 이해 단계에서의 인지적 부담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생산 단계에서 더 매끄럽고 명확하게 발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말시험에서 항상 폭이 둔화된 것은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습 곡선의 특성상 초기의 급격한 향상 이후에는 더 정교하고 심화된 훈련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간의 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통역 교육과정에서 시역 훈련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5.4 미래 통역 환경에서의 함의

통역 환경의 급속한 기술 발전은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Zoom과 같은 원격 회의 플랫폼의 실시간 자막 기능과 컴퓨터 보조 통역(Computer-Assisted Interpreting, CAI)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국제회의에서 비원어민 발표자가 증가함에 따라 발표 원고나 자막을 활용한 시역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Albl-Mikasa, 2018). 이러한 변화는 통역 교육에서 시역 훈련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으며(Chen & Kruger, 2024), 동시에 통역사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 음성 인식 기술로 생성된 자막은 오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실제 통역 환경에서 유창성 저하나 오역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Defrancq & Fantinuoli, 2020; Prandi, 2018). 따라서 통역사는 자동 출력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Cheung & Li, 2022). 실제로 왕 등(Wang et al., 2025)의 연구에 따르면 실시간 자막 제공 시 통역사의 주의 간섭 지표가 9에서 13.2로 상승하여 오히려 인지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입증한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은 미래 통역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역사는 음성 정보뿐만 아니라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이나 기계 번역 출력물 중에서도 신뢰할 만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만을 선별해야 한다. 멀티모달 정보 처리 환경에서 기술이 제공하는 추가 정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주의 분산과 인지 과부하의 위험도 증가시킨다. 따라서 핵심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능력은 판티누올리(Fantinuoli, 2018)가 주장한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역 훈련을 통한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의 함양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역 교육에서도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실시간 전사와 기계 번역을 참조하는 새로운 업무 형태가 확산됨에 따라(Chen & Kruger, 2024; Russell & Takeda, 2015), 시역 훈련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 통역 과정의 일부를 자동화 하더라도 ‘최적의 관련성’을 판단하고 구현하는 인간 통역사의 고유한 역량은 대체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6. 결론

본 연구는 시역 훈련이 통역 학습자의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과 순차통역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관련성 이론에 기반하여 해석했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준실험 연구를 통해, 시역 훈련을 받은 실험군이 통제군에 비해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과 통역 충실성 및 전달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 관련성 이론의 적용 범위를 통역사의 정보 처리 메커니즘으로 확장했다. 기존의 통번역 연구들이 주로 번역 텍스트의 최종 독자 관점에서 관련성 등가를 논의해왔던 것(김순미, 2011; 박희진, 2010; 윤소영과 김혜경, 2017; 이혜승, 2014)과 달리, 본 연구는 통역사를 ‘제1의 청자’로 간주하고 이들이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관련성 이론의 틀로 조명함으로써 통역 수행에서의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둘째, 시역 훈련과 통역 품질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검증한 실증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정보 우선순위 설정이라는 구체적인 하위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순차통역의 충실성과 전달력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셋째, 실제 교육 환경에서의 준실험 연구라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차별점을 보인다. 일회성이나 단기간의 실험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실제 수업 환경에서 비교적 장기간 교육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생태학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다만 본 연구는 37명이라는 제한적인 표본 규모, 한 학기라는 제한된 훈

런 기간, 한-영 순차통역이라는 특정 맥락에 국한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기말시험에서 시역 훈련 효과가 한계적 유의성만을 보인 것은 표본 크기의 제약이나 학습 곡선의 평탄화, 학기 말 피로 누적 등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준실험 설계의 특성상 실험군은 시역 훈련을 통해 추가 학습 기회를 얻었지만 통제군은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교육적 형평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시역이나 통역 수행에 대한 불안, 시역에 대한 태도 차이 등)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수집된 학습자 저널, 시역 과제물, 수업 관찰 기록 등의 질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심리적 변수와 질적 자료는 학습자의 수행과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훈련 효과를 검증하고, 다양한 언어 조합과 통역 방식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제군에도 대안적 훈련을 제공하는 등 집단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설문조사나 면담을 통해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고, 질적 자료를 통합 분석한다면 학습자의 인지 과정과 전략 사용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역 훈련을 통한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 강화가 통역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향후 통역 교육 방법론 개발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순미. (2011). 정보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 추가 정보 제공 방법 — 관련성 이론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1), 35-73.
- 박예진. (2025). 순차통역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 한영 통역 수업의 시역 훈련 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RISS.
- 박예진, 남원준. (2023). 문장구역 훈련과 순차통역 능력 향상에 관한 학부 학습자 인식. *통역과 번역*, 25(2), 27-63.

- 박미정. (2014). 日韓순차통역교육에 있어서의 문장구역 활용 고찰. *일본어교육*, 70, 37-50.
- 박헌일. (2019). 청중의 통역품질 평가에 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23(1), 229-235.
- 박희진. (2010). 라디오 방송 텍스트 번역과 관련성 이론 연구. *번역학연구*, 11(4), 99-124.
- 신정아. (2019). 혼합효과모형(Mixed-Effects Model)을 이용한 실험언어학 데이터 분석 방법 고찰: 자기조절읽기 실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영어학회*, 19(1), 76-94.
- 윤소영, 김혜경. (2017). 관련성 이론으로 살펴본 『거울 나라의 앨리스』 번역 양상 연구 — 시언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1), 117-145.
- 이혜승. (2014). 러시아 포커스(Russia Focus) 번역에서 나타난 지식중개 방법 고찰 — 관련성 이론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6(1), 147-173.
- 최정화. (2006). 현행 통역 번역 전문가 교육과 멀티 플레이어 양성에 대한 고찰. *통역과 번역*, 10(1), 179-193.
- 허지운. (2020). 동시통역을 위한 학습자 문장구역 전략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8(2), 5-35.
- 홍설영. (2012). 현직 통역사들의 문장구역 실무 수행 사례분석과 교육적 제언. *번역학연구*, 13(4), 235-267.
- Agrifoglio, M. (2004). Sight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straints and failures. *Interpreting*, 6(1), 43-67.
- Albi-Mikasa, M. (2018). Global English and 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ing profession. *Trans-kom*, 3(2), 126-148.
- Al-Salman, S. M. (2007). Information processing by interpreter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Arabic-English Studies*, 8, 91-104.
- Babayev, J. (2023). Significance of language skills and language aspects in sight translation. *Danish Scientific Journal*, 77, 84-87.
- Bajo, M. T., Padilla, F., & Padilla, P. (2000). Comprehension processe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 A. Chesterman, N. G. San Salvador & Y.

- Gambier (Eds.), *Translation in context: Selected papers from the EST congress, Granada 1998* (pp. 127-142). John Benjamins.
- Blozis, S. A., & Craft, M. (2023). Alternative covariance structures in mixed-effects models: Addressing intra- and inter-individual heterogeneity. *Behavior Research Methods*, 56(6), 2013-2032.
- Čeňková, I. (2010). Sight translation: Prima vista. In Y. Gambier & L.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pp. 320-323). John Benjamins.
- Chen, S., & Kruger, J.-L. (2024). A computer-assisted consecutive interpreting workflow: Training and evaluation.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8(3), 380-399.
- Chen, W. (2015). Sight translation. In H. Mikkelsen & R. Jourdenais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interpreting* (pp. 144-153). Routledge.
- Cheung, A. K., & Li, D. (2022). Machine-aided interpreting: An experiment of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and Society*, 2(1), 29-49. <http://bit.ly/4nKE4r6>
- Choi, K. H. (2022). Can't you see the Big Picture? The Importance of Teaching Beginner Interpreting Students 'Theme', 'New' and 'Grammatical Metaphor'. *번역학연구*, 23(2), 69-96.
- Clifford, A. (2001). Discourse theory and performance-based assessment: Two tools for professional interpreting. *Meta*, 46(2), 365-378.
- Craik, F. I. M., & Lockhart, R. S. (1972). Levels of processing: A framework for memory research.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1(6), 671-684.
- Defrancq, B., & Fantinuoli, C. (2020).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in the booth: Assessment of system performance, interpreters' performances and interactions in the context of numbers. *Target*, 32(3), 73-102.
- Fang, J., Zhang, X., & Kotze, H. (2023). The effects of training on reading behaviour and performance in sight translation: A longitudinal study using eye-tracking. *Perspectives*, 31(4), 655-671.

- Fantinuoli, C. (2018). Interpreting and technology: The upcoming technological turn. In C. Fantinuoli (Ed.), *Interpreting and technology* (pp. 11-12). Language Science Press.
- Gile, D.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Rev. ed.). John Benjamins.
- Guo, W., Guo, X., Huang, J., & Tian, S. (2024). Modeling listeners' perceptions of quality in consecutive interpreting: A case study of a technology interpreting event. *Palgrave Communications*, 11(1), 1-17.
- Gutt, E.-A. (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2nd ed.). St. Jerome Publishing.
- Hallgren, K. A. (2012). Computing inter-rater reliability for observational data: An overview and tutorial. *Tutorial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8, 23-34.
- Iglesias Fernández, E. (2013). Unpacking delivery criteria in interpreting quality assessment. In A. Collados Aís, M. L. García Becerra, & D. Sánchez Palancares (Eds.), *Quality in interpreting: Widening the scope* (pp. 119-132). Comares.
- Jasim, S. H., & Alinouri, L. (2024). Impact of practicing sight translation skills on the performance of consecutive interpreting trainees. *Iranian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22(86), 11-27.
- Jin, Y. S. (2010). *Is working memory working in consecutive interpreting*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Edinburgh]. <https://bit.ly/41xJadc>
- Kalina, S., & Köln, F. (2000). Interpreting competences as a basis and a goal for teaching.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0, 3-32.
- Koo, T. K., & Li, M. Y. (2016). A guideline of selecting and reporting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reliability research. *Journal of Chiropractic Medicine*, 15, 155-163.
- Krapivkina, O. A. (2018). Sight translation and its status in training of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donesi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7(3), 695-704.

- Lee, J. (2008). Rating scales for interpreting performance assessment.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2(2), 165-184.
- Lee, J. (2012). What skills do student interpreters need to learn in sight translation training?. *Meta*, 57(3), 694-714.
- Li, X. (2015). Designing a sight translation course for undergraduate T&I students.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Aplicada*, 28(1), 169-198.
- Lijewska, A., Chmiel, A., & Inhoff, A. W. (2022). Stages of sight translation: Evidence from eye movements. *Applied Psycholinguistics*, 43, 997-1018.
- Liu, M. (2013). Design and analysis of Taiwan's interpretation certification examination. In D. Tsagari & R. van Deemter (Eds.), *Assessment issues in languag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p. 163-178). Peter Lang.
- Liu, M., & Chiu, Y. H. (2009). Assessing source material difficulty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Quantifiable measures and holistic judgment. *Interpreting*, 11(2), 244-266.
- Liu, M., Schallert, D. L., & Carroll, P. J. (2004). Working memory and expertise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6(1), 19-42.
- Lohse, K., Kozłowski, A. J., & Strube, M. J. (2023). Model specification in mixed effects models: A focus on random effects. *Communications in Kinesiology*, 1(5), 1-28.
- McCambridge, J., Witton, J., & Elbourne, D. R. (2014). Systematic review of the Hawthorne effect: New concepts are needed to study research participation effect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7(3), 267-277.
- Napier, J. (2004). Interpreting omissions: A new perspective. *Interpreting*, 6(2), 117-142.
- Newell, A., & Rosenbloom, P. S. (1981). Mechanisms of skill acquisition and the law of practice. In J. R. Anderson (Ed.), *Cognitive skills and their acquisition* (pp. 1-55). Erlbaum.
- Ouyang, Q. (2018). Assessing meaning-dimension quality in consecutive interpreting training. *Perspectives*, 26(2), 196-213.
- Pöchhacker, F. (2001). Quality assessment in conference and community

- interpreting. *Meta*, 46(2), 410-425.
- Pöchhacker, F. (2016).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2nd ed.). Routledge.
- Prandi, B. (2018). An exploratory study on CAI tool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Theoretical framework and stimulus validation. In C. Fantinuoli (Ed.), *Interpreting and technology* (pp. 29-59), Language Science Press.
- Pym, A. (2008). On omission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Risk analysis of a hidden effort. In G. Hansen, A. Chesterman & H. Gerzymisch-Arbogast (Eds.), *Efforts and models i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research* (pp. 83-105). John Benjamins.
- Russell, D., & Takeda, K. (2015). Consecutive interpreting. In F. Pöchhacker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interpreting* (pp. 96-111). Routledge.
- Setton, R., & Dawrant, A. (2016). *Conference interpreting: A complete course*. John Benjamins.
- Shang, X., & Xie, G. (2023). Investigating sight translation as a predictor of interpreting performance.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7(1), 73-96.
- Shreve, G. M., Lacruz, I., & Angelone, E. (2010). Cognitive effort, syntactic disruption, and visual interference in a sight translation task. In G. M. Shreve & E. Angelone (Eds.), *Translation and cognition* (pp. 63-84). John Benjamins.
- Sperber, D., & Wilson, D. (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 Blackwell.
- Sitnic, I. (2020). Applying sight translation in testing consecutive interpreting skills in undergraduates. *Translatologia*, 1. <https://bit.ly/4olriQZ>
- Tayebi, M. R. (2025). Omission as an indicator of challenge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The interpreters' perspective. *Applied Linguistics Compass*, 1(1), 39-70.
- Viaggio, S. (2002). The quest for optimal relevance: The need to equip students with a pragmatic compass. In G. Garzone & M. Viezzi (Eds.),

- Interpreting in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p. 229-244). John Benjamins.
- Wang, X., Wang, B., & Yuan, L. (2025). The function of ASR-generated live transcription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Trainee interpreters' perceptions from post-task interview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2, Article 166. <https://bit.ly/45EpevN>
- Wang, C. (2023). Strategies for note-taking in consecutive interpreting: A case study based on effort model. *Lecture Notes on Language and Literature*, 6(2), 51-58.
- Weber, W. K. (1984). *Training translators and conference interpreters, language in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Prentice-Hall.
- Weber, W. K. (1990). The importance of sight translation in an interpreter training program. In D. Bowen & M. Bowen (Eds.), *Interpreting: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pp. 44-52). John Benjamins.
- Yamada, H. (2020). Efficacy of sight translation in English-Japanese consecutive interpreting training in a university course.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10(4), 343-352.
- Zou, D., & Guo, J. (2024). Parallel translation process in consecutive interpreting: Differences between beginning and advanced interpreting students. *Acta Psychologica*, 248, Article 104358. <https://bit.ly/41uhtGg>

부록

1. 충실성(Fidelity)

점수	기준
9~10	우수 (Excellent): 원문의 정보가 매우 정확하게 전달되며, 의미의 통일성이 뛰어나다. 누락이나 추가가 없고 논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됨.
7~8	양호 (Good): 원문의 정보가 대부분 정확히 전달되며, 의미의 통일성이 잘 유지됨. 약간의 누락이나 추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원문에 충실하고 논리가 대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됨.
5~6	보통 (Average): 원문의 주요 정보가 대체로 전달되나, 의미의 통일성에 다소 문제가 있음. 몇 가지 누락이나 추가가 있어 일부 정보가 왜곡될 수 있으며 논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3~4	미흡 (Below Average): 원문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원문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어, 의미의 통일성이 떨어짐. 논리적 연결이 불분명함.
1~2	부족(Poor): 원문의 정보가 상당 부분 잘못 전달되거나 누락 또는 추가되어, 의미의 통일성이 크게 결여됨. 논리적 연결이 현저하게 부족함.

2. 전달력(Delivery)

점수	기준
9~10	우수 (Excellent): 말 끊김이나 주저어가 거의 없으며, 불필요한 수정도 없음. 속도가 청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듣기 편안함.
7~8	양호 (Good): 말 끊김이나 주저어가 드물게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미함. 불필요한 수정이 간헐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속도가 대체로 청자에게 적합함.
5~6	보통 (Average): 말 끊김이나 주저어가 가끔 발생하며, 불필요한 수정이 다소 있음. 속도가 일부 청자에게는 적절하지만 다른 청자에게는 불편할 수 있음.
3~4	미흡 (Below Average): 말 끊김이나 주저어가 자주 발생하며, 과도한 수정이 눈에 띈다. 속도가 청자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음.
1~2	부족(Poor): 말 끊김과 주저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과도한 수정으로 인해 흐름이 방해됨.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려 청자의 이해나 편안함을 크게 저해함.

The effect of information prioritization competence on fidelity and delivery in consecutive interpreting: A relevance-theoretic approach

Yae-Jin Park (yaejin.a.park@gmail.com)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uth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sight interpreting (SI) training develops information prioritization competence and explores its relationship with fidelity and delivery in consecutive interpreting (CI). Based on Sperber and Wilson's Relevance Theory, information prioritization was defined as the ability to identify, select, and reorganize essential content to achieve optimal relevance within cognitive constraints. The study involved thirty-seven undergraduate students from two intact classes, who were randomly assigned 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Over a 15-week period, the experimental group ($n = 18$) undertook SI training with structured practice and guided feedback to strengthen information prioritization strategies, while the control group ($n = 19$) received conventional CI training. A linear mixed-effects model analysis of 110 recordings from pre-, mid-, and final examinations, which were evaluated by six professional raters, revealed a significant midterm improvement in information prioritizat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with an upward trend continuing through the final exam. Information prioritization correlated with overall CI performance, showing greater association with fidelity than with delivery. These findings support the view that interpreting involves meaning-oriented and selective re-structuring of information rather than mere linguistic transfer. They also highlight the value of integrating targeted SI training into CI curricula to develop information prioritization competence.

Keywords: Information prioritization competence; consecutive interpreting; sight interpreting; relevance theory; interpreting training

키워드: 정보 우선순위 설정 역량, 순차통역, 시역, 관련성 이론, 통역 교육

박예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외래교수

yaejin.a.park@gmail.com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13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15일